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조경완



올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오르한 파묵의 출세작 '하얀 상'을 읽고 있다. 일찍이 터키문학의 깊이를 간파하고 한글판을 냈던 번역자가 존경스럽다. 역시 소설은 명성대로 섬세하다. 베네치아의 지식 청년이던 '나'는 나폴리로 가는 도중 터키 해적선을 만나 이스탄불로 끌려온다. 우여곡절 끝에 한 지식인의 노예가 된 '나'는 주인으로부터 서구의 천문학·의학·화학을 구술해보라는 명령을 받는다. 별시와 함께.

오르한 파묵의 주인공들

그러나 학문의 속성은 두사람을 지적 동반자로 만들어 버린다. '나'는 가르치기만 한게 아니다. 주인으로부터 동방의 지식세계를 송두리째 전수받으며 지적 충격을 받는다. 주인공들은 크리스토프와 이슬람이라는 절대종교를 서로 인정하고(터키인들은 주인공을 강제 개종시키려다 포기한다) 상대방의 세계를 하나하나 이해해 나간다. 17세기를 무대로 한 이 소설을 읽으며

물론 모든 것이 돌로 갈라져 버린 오늘날의 한국사회를 떠올리게 되는 것은 왜일까. 죄와 우, 가진 자와 덜 가진 자가 죄다 나서 '이념적 내전(內戰)'을 벌이고 있는

北의 핵실험, 南의 핵분열

한국사회는 김정일이 핵실험을 강행하는 마당에 이르러선 그 싸움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가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미국의 북 핵시설 타격 혹은 공해상에서의 충돌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전면전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대재앙이다. 이라크 전쟁과는 비교도 안될 대량 살상이 불가피하고 한국은 순식간에 최빈국으로 전락한다. 전쟁 결과에 따라서는 정부가 사라질 수도 있다. 책임있는 정부라면 여기까지도 대비해야 한다. 이 위기에 직면해 있는 우리 남한사회

를 보자. 아마추어라는 편견을 들어온 정부는 막상 일이 터지자 역시나 당황하고 있다. 시험공부를 안한 수험생처럼 답안을 놓고 단 한자도 써내려가지 못하고 있다. 자주·민중공조 라는 정책의 끈을 놓아버려야 할지, 햇볕정책은 유효하다는 DJ의 주장을 따라야 할지 도무지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미국은 목을 조여오고 일본은 덩달아 군사대국화의 춤을 춘다. 여당은 며칠간의 혼란을 겪더니 대북제재 신중론으로 갈피를 잡았다. '위기를 확대하지 말자, 국제사회와 공조하되 전략

을 못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강경책이 불러온 '민약의 사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이 그들은 비분강개하는 우국지사들이 되어있다.

츄츄는 핵 징고이즘

유치한 핵 징고이즘(jingoism : 맹목적 애국주의)도 춤을 춘다. 북한의 핵무기는 훗날 통일한국의 핵무기가 아니겠느냐며 김정일의 '상무정신'을 칭송하는 무리까지 있다.

저장거리의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부시의 임기까지만 버티면 된다며 침을 튀긴다. 1994년 북핵위기 때의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였다는 걸 모르는 얼치기들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같은 철저한 분열과 반목을 보면서 파묵의 주인공들이 서로에게 취하고 있는 지적이고도 교양있는 태도를 대비시킨다는 건 너무 터무니없어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볼까. 지금 우리의 '국론 대분열'은 장차 누가 언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소설 속 두 남자처럼 더디고 인쇄심이 드는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의견이 다른 상대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부터 배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핵실험은 북한이 했는데, 핵분열은 남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편집국 부국장〉 kycho@kwangju.co.kr

시설

진통끝에 출범한 2기 '문화수도 조성위'

민간위원 선임 지연 등으로 7개월여간 구성이 미뤄졌던 2기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2기 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1기 위원회에서 마련한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활동을 벌이게 된다. 2기 조성위의 출범으로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제도(특별법)와 조직(조성위)의 틀을 갖추게 됨으로써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은 지난 8월29일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국책사업으로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큰 틀을 완성했다. 하지만, 내년 3월까지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해야 하고, 5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확보 문제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다. 2기 조성위는 바로 이러한 난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고 있다.

2기 조성위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데 역

점을 두어야 한다. 아직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광주만의 특색이 아닌 국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2기 조성위가 앞장서 달라는 얘기가. 2기 조성위는 문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수도 조성 종합계획에 광주시의 장기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업추진과정에서 문광부와 광주시 간에 빚어지는 의견충돌이나 불필요한 논란을 중재하는 일도 2기 조성위의 책무 가운데 하나다.

무엇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조성위 위상강화 기구로 전락하는 일이다. 2기 출범의 지연이유가 조성위 기능과 역할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라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문화수도 조성사업은 기본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기 조성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할 것이다.

북한 선박 첫 억류...대북제재 치밀해야

북한의 핵 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이후 처음으로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을 실시, 억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홍콩 당국이 검색에 나섰지만 핵물질이나 무기 등 금지 품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도 위원장 등 집행부 인선을 마치고 제재 대상 선정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의 핵무기 및 핵기술 이전 가능성을 고려, 이에 대한 통제를 주입무로 하게 된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구인 만큼 제재위의 활동에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며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한다

고 해도 대북제재를 원천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대북제재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한반도 비핵화를 겨냥한 포괄적 수단이어야 한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기구(PSD)에 우리나라가 참여하게 되면 북한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마구잡이식으로 북한 선박을 정선시키고 검문하면 예기치 못한 무력충돌까지 빚을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제재조치를 보다 치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북한도 국제사회의 대응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선박 검문과 해상봉쇄 등 단계별 제재가 현실화되면 체제 자체를 위협받을 수 있다. 북한은 더 이상 추가 핵실험 운운하며 한반도 비핵화 정세를 불안하게 해선 안 된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에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 폐기와 핵 확산방지를 선언하길 바란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시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칼럼

박행순



21세기에 들어서 과학기술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 되며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대가 되었다.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부조직 및 제도를 정비하며 기술경쟁과 제휴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과학의 전략적 분야를 정하여 특성화할 뿐만 아니라 과학의 대중화, 저변확대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미국의 '미국 경쟁력 강화계획'에서는 기초과학연구와 특히 수학과 과학교육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제3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8대 기술분

지안 9월에 광주테크노파크에 개소한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서는 과학대중화를 위하여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Science Communicator-SC)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양성하고자 한다. 이는 자연과학계열의 학·석·박사학위를 소지한 여성들이 어린이들에게 과학적 사고를 하도록 돕고, 과학에 흥미를 가지게 하는 과학지도사 양성프로그램이다. SC들이 방과후 학교에 투입되어 제도권교육에 참여할 때 암기와 주입식 위주의 문제점을 보완 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과학의 저변확대, 대중

여성 과학인, 현대과학 해설자 맡는다

야를 선정하여 인재육성과 전략기술 개발 등에 주력하고, 중국은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유럽 연합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2002년에 '중국인민 공화국 과학기술 보급법'을 반포하여 법제화하였으며 9월 셋째 공휴일을 '중국 과학기술 보급일'로 정하여 전 인민을 과학정신으로 무장시키려고 한다.

우리 정부도 21세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으로 ▲과학기술의 대중화·생활화 ▲과학기술의 특성화·효율화 ▲과학기술의 세계화를 주제로 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제1의 저출산율은 머지않아 우리 노동인력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여성인력의 동력화를 하나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망한 과학꿈나무들을 발굴, 육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역할이 크다. 과학적 사고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 호기심 많은 어린 자녀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면 이는 아이의 과학적 재능을 말살시키는 것임을 명심하시라! "그런 것 알 것 없어.", "그런 건 몰라도 돼!", "왜는 왜 이렇게 궁금한 것이 많아?", "그것도 몰라?", "○○한테 물어봐."라고 떠넘기는 것 등이다.

어머니가 정성을 다하여 자녀를 양육하듯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과학꿈나무들을 양성하고 과학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 과학강국을 위하여 꼭 해야 할 일이다. SC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민간과학대사로서의 다양한 역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장 ·2005년 10월 수상자>

은펜칼럼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여학생들 시내 버스 바닥에 침뱉어 '충격'

얼마전 버스를 탔다가 여학생 둘이 버스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봤다. 처음 봤을 때는 입에 이물질이 들어가 그러는 것이려니 했는데 계속 뱉는 것이다. 너무 보기 싫어 "학생, 버스 안에서 그렇게 침을 뱉으면 되겠다"며 휴지를 건네줬는데, 그 여학생은 오히려 "아저씨, 얼골 땀이나 닦으세요"라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더니 버스 바닥에

침을 한번 더 뱉 뱉은 뒤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버렸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논어에 "배움의 길에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와서는 효도하고 밖에서 나가서는 어른에게 공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언행을 삼가 하라"라는 말이 있다. 입시공부만 가르킬게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신경써야 할 것 같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

독자마당

벼·고추 말리는 시기 국도변 교통안전 대책 시급



농민들이 농촌 지역 국도나 이면 도로 등에 벼·고추·콩·참깨 등을 내어놓고 말리는 일이 많다. 가을 햇빛과 바람을 흠뻑 받을 수 있도록 농기구로 이리저리 뒤집어주는 농민들도 쉽게 볼 수 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잘 건조시킨다는 것은 수확의 질과 량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별래가 생기지 못하게 하면서 브랜드 있는 우리농산물의 맛이 나도록 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상당수 운전자들도 이같은 점을 알기 때문에 도로에 내어놓은 농산물을 피해 지나간다. 2개 차로 중 한 개 차로를 막고 말리면서 도로는 더욱 좁아져 중

앙선을 침범, 마주오는 차량을 피해 길 옆에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늦은 시간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서는 더 위험하다. 해당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외지인들의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해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농산물 위로 지나치기도 한다. 애써 땀흘려 수확한 뒤 잘 말려 제값 받으려고 내놓은 농산물이 타이어에 짓뭇개지기도 하는 것이다.

농민들이 농산물을 내놓고 말릴 충분한 공간이 도로 외에는 없는 걸까.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표지판 설치 등, 여러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고민해야 할 때라고 본다.

▲김재준·광주시 동구 계림동

농촌 일손돕기·농촌 체험프로그램 접목을

지난주 고향 강진에 내려가보니 수확철이라 한창 바빴지만 일할 만한 젊은 사람은 대부분 도시로 빠져나가 일손이 없어 힘들어하는 농민들이 많았다.

영농 기계화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사람의 손길이 많이 요구되는 것이 농사일이다.

그렇다고 비싼 인건비를 줘가며 인부를 고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한다. 힘 안들이고 일하면서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을 수 있는 일거리를 찾는 인부들에게 농촌 일거리는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직장인들이 농촌 일손 돕기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

주말을 이용해 직장 단위나 가족끼리 인근 농촌을 찾아 일손을 거들면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이 함께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훌륭한 농촌 체험 학습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은 매년 일손이 부족한 농촌 마을과 도시민들을 연결, 수확철 일손 돕기 등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했으면 한다.

생색내기용 일회성 농촌 일손 돕기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

▲이윤미·광주시 서구 양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無 等 鼓

지난 1999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1억2천500만달러를 들여 만든 화성 기후 탐사선이 286일의 항해 끝에 화성에 닿자마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이없게도 록히드마틴의 탐사선 제작팀이 비 법정계량단위인 야드와 파운드로 작성한 탐사선 제원 정보를 NASA의 조종팀이 법정계량단위인 미터법으로 착각한 게 사고의 원인이었다. 140~160km 높이

의 궤도에 자리 잡아야 할 탐사선이 계획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

비 법정 단위 운영



의 궤도에 자리 잡아야 할 탐사선이 계획보다 100km 아래인 60km 지점의 낮은 궤도

로 진입하면서 대기권과의 마찰열을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혼란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측정할 때 사용하는 평은 토지의 경우 3.3㎡가 1평이지만 우리는 0.09㎡가 1평이다. 측량법의 원조인 중국과 일본도 2000년대 초에 평 단위를 근절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이 평을, 대부분의 귀금속판매업이 돈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마지기의 경우 한 술 더 떠 지역에 따라 넓이도 다르다.

정계량단위로 표시된 계량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제작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면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례가 적발

되면 처벌하기로 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 법정단위인 '평'과 '돈'이 포함된 물품이다. 혼선과 손실을 막겠다는 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오랫동안 써온 걸 병행하기도 못하게 하는 조치는 아무래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 州 日 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